

[2026] 한주간 쉽게 보는

# 도내 언론 키워드 동향

Jeju News Keyword Trends

No. 87



# Contents

---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대상 기간 : 2026.04.09~2026.04.15

## ①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정치·행정 ..... 1
- 경제·관광 ..... 2
- 지역·사회 ..... 2

## ②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 3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 8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 11

##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에 대한 도내언론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경선(예비후부/권리당원), 마을, 도의원, 기반, 생활
경제·관광	항공(노선), 소상공인, 관광객, 기반, 성장
지역·사회	항공(결항), 꽃자왈, 쓰레기, 편이, 서명숙

※ 분석 기간 : 26.04.09.~26.04.15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정치·행정	경선(예비후부/권리당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결선 투표 진행</li> <li>- 경선 부정 투표 유도 및 공정성 논란</li> <li>- 도의원 경선 현역 탈거 탈락 및 이변 속출</li> </ul>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자도 마을관리소 설치 통한 주거 개선</li> <li>- 아라동 햇빛소득마을 유치 및 에너지 선순환</li> <li>- 마을 단위 돌봄 및 생활 인프라 확충</li> </ul>
	도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의회 비례대표 정수 확대 및 선거구 확정</li> <li>- 서귀포시 여성 의무 공천 대상 지역 선정 난항</li> <li>- 도의원 후보들의 공약 경쟁 및 지역 현안 해결</li> </ul>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부산 물류 직항로 안정화 및 항만 구축</li> <li>- 서울 내 '제주미래센터' 조성 및 수도권 거점 강화</li> <li>- 제주형 미래 신산업 및 혁신 기업 육성 기반</li> </ul>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형 민생 회복 및 에너지 민생 안전망</li> <li>- 교통 사각지대 해소 및 생활형 이동 지원 체계</li> <li>- 어르신 건강·정서 지원을 위한 스마트 복지 혁신</li> </ul>

○ (경제·관광 분야) 주요 보도 내용

경제·관광	항공(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병에 따른 공급석 감소 및 정책 건의</li> <li>- 유류할증료 급등에 따른 가계 부담 가중</li> <li>- 기상 악화로 인한 대규모 항공 결항 사태</li> </ul>
	소상공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문 지도사 현장 파견</li> <li>- 경영 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조기 지원 시행</li> <li>- 소상공인 특화 AI 신용평가 모형 도입</li> </ul>
	관광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 여행객 중심의 소비 트렌드 변화 대응</li> <li>-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li> <li>- 마을 관광 기획 전문가 '카툼마스터' 육성</li> </ul>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농정 구현을 위한 전수조사 데이터 구축</li> <li>- 제주형 스마트공장 보급 가속화 및 환경 개선</li> <li>- 크루즈 관광 인프라 및 주차 혼잡 해소 정비</li> </ul>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망 스타트업 및 로컬 관광 기업 집중 육성</li> <li>- 고용 지표의 양적 성장과 질적 개선 과제</li> <li>- 지역 특화 브랜드 '제주도니'의 명품화 성과</li> </ul>

○ (지역·사회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지역·사회	항공(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풍 및 급변풍에 따른 항공편 무더기 결항 사태</li> <li>- 체류객 지원을 위한 제주공항 '주의' 단계 발효</li> <li>- 항공기 운항 정상화 및 임시 증편을 통한 수송 작전</li> </ul>
	꽃자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장굴 인근 꽃자왈의 대규모 쓰레기 무단투기 방치</li> <li>- 꽃자왈 요가·명상 및 사운드워킹 등 힐링 프로그램 운영</li> <li>- 꽃자왈 생태계 보전 및 연구를 위한 민관 협력 강화</li> </ul>
	쓰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라산국립공원 내 고질적인 쓰레기 투기 문제 심각</li> <li>- '자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 범도민 인식 개선 캠페인</li> <li>- 꽃자왈 무단투기 사각지대 관리 부실 및 수거 대책</li> </ul>
	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동 약자의 접근성 향상 및 생활 편의 증진 지원 사업</li> <li>- 공직자 부패 비리 및 특정 업체에 대한 불법 편의 제공</li> </ul>
	서명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올레의 어머니' 서명숙 이사장 별세 및 추모 물결</li> <li>- 언론인으로서의 치열한 삶과 제주올레 개척의 역사</li> <li>- '놀멍, 쉬멍, 걸으멍' 철학이 남긴 지속 가능한 관광의 가치</li> </ul>



정치·행정	경선(예 비후부/ 권리당원)	<p>야합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음. 문 후보는 독자 노선을 강조하며 도민과의 연대를 통한 정면 돌파를 선언한 가운데, 각 진영은 부동층과 당심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막판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음.</p> <p>- <b>경선 부정 투표 유도 및 공정성 논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성곤 후보 측 보좌진이 단체 대화방에서 권리당원들에게 일반인 대상 여론조사에도 참여하도록 유도한 '1인 2표' 의혹이 불거져 문대림 후보 측이 공식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사태가 발생함. 위 후보는 보좌진의 개인적 실수임을 밝히고 공식 사과하며 해당 인사를 면직 처리하였으나, 문 후보 캠프 인사도 유사한 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됨.</li> <li>· 도의원 경선지인 제주시 오라동과 아라동갑 선거구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위장전입 기반의 '유령당원' 가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 선거라는 비판과 함께 사법 수사 요구가 빗발치고 있음. 오라동 마을회장단은 경선 중단을 공식 요구하였으며, 민주당 도당은 진상 규명을 위해 오라동 선거구의 투표 결과 발표를 전격 보류하고 전수 조사를 예고함.</li> </ul> <p>- <b>도의원 경선 현역 탈거 탈락 및 이번 속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의 1차 도의원 경선 결과 용담1·2동, 삼양·봉개동, 아라동갑 등 주요 선거구에서 현역 의원 3명이 대거 탈락하는 이변이 발생하며 지역 정가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이창민, 박안수, 김봉현 예비후보 등 정치 신예들이 권리당원들의 지지를 얻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으며, 이는 변화를 바라는 당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분석됨.</li> <li>· 현직인 양병우 의원이 대정읍 경선에서 탈락하고 여성 신예 강소연 후보가 대륜동에서 고배를 마시는 등 현역 프리미엄이 작동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특히 권리당원 100% 투표 방식이 당심의 쓸림 현상을 극대화함. 탈락한 일부 후보들은 경선 과정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하거나 사법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경선 이후의 당내 통합이 새로운 과제로 부상함.</li> </ul>
	마을	<p>- <b>추자도 마을관리소 설치 통한 주거 개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더불어민주당 김승준 후보는 추자도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개념을 마을 단위에 도입한 '추자 마을관리소' 설치를 추진하여 소외 지역의 생활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고 공약함. 마을관리소는 전등 및 수도꼭지 교체 등 생활 밀착형 주거 수리와 안심 순찰, 장비 대여 등을 수행하며 섬 전체를 하나의 안전한 관리 체계로 묶을 계획임.</li> <li>· 해당 사업은 주민인 '행복마을지킴이'를 우선 채용함으로써 도서 지역에 양질의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이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키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목표로 설계됨. 추자도 모델의 성공적인 안착을 기반으로 향후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마을관리소 모델을 제주 전역으로 확대 도입하여 도민 삶의 질을 높일 전망이다.</li> </ul> <p>- <b>아라동 햇빛소득마을 유치 및 에너지 선순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더불어민주당 정현철 후보는 아라동에 '햇빛소득마을'을 유치하여 주민 주도의 마을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재생에너지 운영을 통한 수익을 주민들에게 직접 배당하는 '햇빛연금' 모델을 구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함. 마을에서 생산된 전</li> </ul>

	<p><b>마을</b></p>	<p>기를 인근 첨단과학단지 입주 기업에 우선 공급하여 RE100 달성을 지원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선순환 체계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전 수익을 활용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 공동체 운영 기금을 마련함으로써 단순한 에너지 생산을 넘어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혁신적인 마을 발전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음. 주민이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통해 에너지 대전환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아라동을 제주형 기본 사회 모델을 실증하는 전국적인 선도 마을로 육성하겠다는 의지임.</li> </ul> <p><b>- 마을 단위 돌봄 및 생활 인프라 확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더불어민주당 박호형 후보는 맛별이 부부의 보육 부담을 덜기 위해 지자체 운영 마을 돌봄 센터인 '꿈들'의 일도2동 거점 유치를 추진하고 학교 밖에서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머물며 방과 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함. 24시간 긴급 돌봄 예약제를 신설하여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을 메우고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려는 계획임.</li> <li>· 또한 자원순환센터와 연계한 자립형 마을 경제 모델인 '꼬부리' 브랜드를 개발하여 마을 업사이클링 상품 제작과 브랜드 스토어 운영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겠다고 밝힘. 이는 주민 체감형 거점 시설을 확충하고 집수리 및 보행 환경 개선 등 생활 밀착형 사업을 병행함으로써 마을 공동체의 자생력을 높이고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함.</li> </ul>
<p><b>정치·행정</b></p>	<p><b>도의원</b></p>	<p><b>- 도의회 비례대표 정수 확대 및 선거구 획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교육의원 제도 일몰에 따라 제주도의원 전체 정수 45명을 유지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현재 8석에서 최대 13석까지 확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중앙선관위와 지역 정치권은 선거구 공백으로 인한 유권자의 알 권리 침해를 우려하며 4월 중순까지 선거구 획정과 핵심 규칙을 반드시 확정할 것을 촉구함.</li> <li>· 김한규 의원과 정춘생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은 비례대표 비율을 25%에서 30% 수준으로 상향하여 도민 참정권을 보호하고 기초의회가 없는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그러나 거대 양당의 심의 지연에 항의하며 정춘생 의원이 위원직을 사퇴하는 등 여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도의원 정수 조정 문제가 여전히 안갯속임.</li> </ul> <p><b>- 서귀포시 여성 의무 공천 대상 지역 선정 난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1차 경선 후보를 확정했으나 서귀포시 10개 선거구 중 상당수가 남성 후보로 단수 공천되거나 여성 후보가 없는 경선 지역으로 분류되어 여성 의무 공천 규정 준수에 비상이 걸린 상황임.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1명 이상의 여성을 후보로 추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지역구의 모든 도의원 후보 등록이 무효 처리되는 강력한 페널티가 존재함.</li> <li>· 민주당은 여성 후보가 없는 송산·효돈·영천동과 정방·중앙·천지·서홍동 등 2곳을 대상으로 여성 특구 지정이나 전략 공천을 검토 중이나 적합한 인물 물색에 어려움을 겪으며 교육지책을 마련 중임. 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선 지역 후보 확정 일정과 연계하여 여성 의무 공천 방향을 최종 협의할 예정이며, 이는 본선 승리를 위한 전략적 판단과 맞물려 초기의 관심사로 떠오름.</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도의원</b></p>	<p><b>- 도의원 후보들의 공약 경쟁 및 지역 현안 해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의원 예비후보들은 주차난 해소와 교육 환경 개선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공약을 쏟아내고 있으며, 양영식 후보의 도청 인근 주거지역 상향 조정과 송창권 후보의 서빛중학교 IB 교육 도입 추진 등이 대표적인 사례임. 후보들은 단순한 녹지 조성을 넘어 생활 체육과 커뮤니티 기능이 결합된 남조봉공원 조성이나 공공형 키즈카페 등 인프라 확충을 약속하며 지역구 표심 공략에 집중함.</li> <li>· 또한 진보당 양영수 후보는 아라동에 공공사우나 건립과 마을 전담 간호사 도입을 제안하고, 한동수 후보는 소상공인을 위한 질병·상해 휴업 손실 보상 보험 도입을 공약하는 등 소외 계층을 위한 촘촘한 정책 경쟁이 벌어짐. 각 후보는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정책 발표회를 통해 지역 변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며, 특히 유권자들의 생활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생활 정치'를 전면에 내세움.</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정치·행정</b></p>	<p style="text-align: center;"><b>기반</b></p>	<p><b>- 제주~부산 물류 직항로 안정화 및 항만 구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는 제주의 지리적 한계로 인한 과도한 물류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해상 운송, 항만 처리, 공항 연계를 통합한 '제주~부산 물류 고속도로' 구축과 스마트 항만 시스템 도입을 공약함. 부산항을 전략적 거점으로 삼아 컨테이너 직항 노선을 상시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자생적 물류 혁신을 통해 제주 경제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임.</li> <li>· 냉동·냉장 화물 최우선 처리 시스템과 제주 전용 물류센터 구축을 통해 농수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AI 기반 스마트 물류 체계를 도입하여 물류비 걱정 없는 경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이는 경제의 혈관인 물류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제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물류 병목 현상을 제거하여 도민 생활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경제 영토 확장 전략임.</li> </ul> <p><b>- 서울 내 '제주미래센터' 조성 및 수도권 거점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특별자치도는 서울 주재 제주 기관들의 통합 공간 마련과 탐라영재관 이전을 위해 서울 용산구 소재 한국마사회 장학관 건물을 매입하여 '(가칭) 제주미래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본격 진행 중임. 해당 건물을 매입해 제주 연계 스타트업 임대 사무공간, 브랜드 쇼룸, 도민 기숙사 등으로 활용하여 수도권 내 제주 인적·물적 자원의 거점을 구축하려는 계획임.</li> <li>· 사업비 약 1137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기존 탐라영재관 매각 대금과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방침이나, 도정 리더십 교체에 따른 추진 동력 약화 우려와 자원 확보 방안의 명확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됨. 성공적인 조성 시 연간 20억 원 규모의 수익 창출과 기관 통합에 따른 비용 절감, 제주 출신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 등 다각적인 기대 효과가 예상됨.</li> </ul> <p><b>- 제주형 미래 신산업 및 혁신 기업 육성 기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후보들은 제주 전역의 균형 성장을 위해 MRO, 디지털, 바이오 등 권역별 특화 거점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혁신 기업 200개를 선정해 파격적인 규제 특례를 지원하는 '제주형 혁신 기업 육성' 정책을 발표함. 문성유 후보는 '제주 투자청' 신설을 통해 정예 챔피언 기업을 발굴하고, 위성곤 후보는 1조</li> </ul>

	<p><b>기반</b></p>	<p>원 규모의 '제주미래성장펀드'를 조성해 대규모 전략 자본을 투입할 계획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대림 후보는 1차 산업과 물류, 에너지 산업과 시를 중심으로 한 6대 혁신 엔진 가동을 약속하며 제주 해양 정책을 '블루라이프 산업'으로 재편하여 지역 소득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음. 이는 관광 위주의 산업 구조를 다변화하고 청년들이 지역 경제의 주역으로 설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여 제주의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포석임.</li> </ul>
<p><b>정치·행정</b></p>	<p><b>생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주형 민생 회복 및 에너지 민생 안전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대림 후보는 고유가 폭등으로 인한 도민 전체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탐나는전 확대, 수도요금 감면, 저금리 대출 등 소상공인 4대 경감 대책과 1260억 원 규모의 에너지 민생 안전망 구축을 공약함. 정부 추경과 연계하여 지원 대상을 전 도민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에게는 최대 65만 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임.</li> <li>· 위성곤 후보는 '제주형 민생 119' 가동과 3000억 원 이상의 민생 추경 편성을 통해 교통·물류·돌봄 등 도민 생활의 고단함을 덜어주는 '테약'과 같은 도정을 약속하며 긴급 민생 경제 회복 비상 프로젝트를 제안함. 이는 고물가 시대에 도민들이 즉각 체감할 수 있는 비용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고 상시 대응 시스템을 갖추으로써 무너진 민생 경제를 빠르게 복구하려는 정책적 의지임.</li> </ul> </li> <li>- <b>교통 사각지대 해소 및 생활형 이동 지원 체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현철 후보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영평·월평 지역에 '오피서버스' 집중 배치와 마을 순환 버스 시범 도입을 통해 학생 통학 및 어르신 병원 이용 불편을 해결하는 수요 맞춤형 교통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함. 자가용 없이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와 심야 시간대 이용자를 위한 '이동 지원 바우처' 도입을 제안하여 생활 속 이동권 보장을 강화함.</li> <li>· 교육감 예비후보인 고익숙 후보는 대중교통 부족으로 인한 학생들의 등하교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를 활용한 '등하갯길 안심 택시' 서비스를 공약으로 제시하며 통학 부담 경감을 꾀하고 있음. 위성곤 후보는 심야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고 도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등 합리적이고 유연한 스마트 교통 행정을 예고함.</li> </ul> </li> <li>- <b>어르신 건강·정서 지원을 위한 스마트 복지 혁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권중 후보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경로당'을 운영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스마트 경로당 매니저' 제도를 도입하여 돌봄과 경제 활동이 통합된 복지 모델을 제시함. 치매 예방 교육과 저염 식단 지도 등 전문 건강 프로그램과 함께 전문 심리 상담사의 정기 방문 서비스를 통해 고독감과 우울감을 겪는 어르신들을 세심하게 살필 계획임.</li> <li>· 김황국 후보는 생활 체육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서부공원 내 파크 골프장 조성을 약속하며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음. 이는 경로당을 단순한 휴게 공간을 넘어 문화, 체육, 의료 서비스가 결합된 복합 복지 거점으로 혁신함으로써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선제적인 노인 보장 체계를 확립하여 도민의 행복도를 높이는 조치임.</li> </ul> </li> </ul>

- 경제·관광 보도자료의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항공(노선), 소상공인, 관광객, 기반, 성장 등으로 나타남



[그림 2] 경제·관광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경제·관광	항공 (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병에 따른 공급석 감소 및 정책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으로 인한 슬롯 재배분 과정에서 대형 기종 대신 저비용항공사의 소형 항공기가 투입되어 실질적인 공급 좌석이 전년 대비 2.38% 감소함.</li> <li>· 제주도와 관광협회는 국토교통위원회 등을 방문하여 항공기 운항 편수의 조속한 회복, 기재 대형화 유도, 성수기 슬롯의 탄력적 운영 등 좌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력히 요청함.</li> </ul> </li> <li>- 유류할증료 급등에 따른 가계 부담 가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란 사태 등 중동 전쟁 여파로 5월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전월 대비 4.4배 폭등한 3만 4,100원으로 책정되어 도민의 이동권 제약 및 개별 관광객의 여행 경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li> <li>· 항공료 부담 급증에 따라 도민들은 병원 진료 및 생업을 위한 항공권 구매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유류할증료 지원 근거가 부족하여 관련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임.</li> </ul> </li> <li>- 기상 악화로 인한 대규모 항공 결항 사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공항에 발효된 급변풍, 강풍, 뇌우 특보로 인해 하루 246편 이상의 항공</li> </ul> </li> </ul>
-------	------------	--

<b>경제·관광</b>	<b>항공 (노선)</b>	<p>기가 무더기로 결항되면서 약 8만 9,000명의 이용객 발이 묶이는 등 극심한 공항 혼잡과 이용객 불편이 발생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항공사와 항공사는 체류객 수송을 위해 특별기 38편을 긴급 투입하였으나, 봄철 단체 관광 수요와 맞물려 잔여 좌석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됨.</li> </ul>
	<b>소상공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문 지도사 현장 파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내 청년과 경력보유여성 17명으로 구성된 'AI·디지털 튜터' 발대식을 갖고, 디지털 기기 활용에 미숙한 소상공인 점포 100여 곳을 직접 방문하여 1대1 맞춤형 컨설팅 및 현장 교육 활동을 전개함.</li> <li>· 생성형 AI를 활용한 홍보물 제작, 배달 플랫폼 입점 관리, 키오스크 및 테이블 오더 활용법 등을 중점 지원하여 소상공인 스스로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고 비대면 마케팅 역량을 확보하도록 노력함.</li> </ul> </li> <li>- <b>경영 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조기 지원 시행</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유가 상황 지속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착한가격업소' 395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전기 및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업소당 최대 50만 원까지 당초 계획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 신속히 지급함.</li> <li>· 연간 최대 100만 원 규모의 공공요금 혜택을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지출 비용을 절감하고, 고물가 시대에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업소의 지속적인 운영과 물가 안정 기여를 적극 뒷받침함.</li> </ul> </li> <li>- <b>소상공인 특화 AI 신용평가 모형 도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은행이 지방은행 중 유일하게 금융위원회의 소상공인 특화 AI 기반 신용평가 모형(SCB)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기존 재무 데이터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매출 세부 데이터 및 상권 정보 기반 평가를 실시함.</li> <li>· 담보가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 특성과 성장 가능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금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DJ Bank' 서비스와 연계한 비대면·디지털 금융 채널 확대를 통해 포용 금융을 실현함.</li> </ul> </li> </ul>
	<b>관광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개별 여행객 중심의 소비 트렌드 변화 대응</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체 관광에서 개별 여행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MZ세대가 주요 고객으로 부상함에 따라 가성비 중심의 소비가 고착화되어 외국인 개별 관광객 1인당 지출액이 과거 대비 약 46%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남.</li> <li>· 달라진 관광 세대의 소비 패턴에 맞춰 단순 관광지 방문을 넘어 제주에 더 오래 머물며 지출을 유도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콘텐츠 개발과 구매력 높은 도시를 공략한 항공 노선 다변화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됨.</li> </ul> </li> <li>- <b>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바일 여권 인증 기반의 '트립패스(TripPASS)' 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본인 확인, 간편 결제, 세금 환급 기능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여행 편의성을 극대화함.</li> <li>· 도내 음식점에 영어·일본어·중국어로 구성된 QR 코드 기반 다국어 메뉴판을 보급하고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 정보를 포함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간편하게 주문할 수 있는 식음료 환경을 조성함.</li> </ul> </li> <li>- <b>마을 관광 기획 전문가 '카름마스터' 육성</b></li> </ul>

<b>경제·관광</b>	<b>관광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마을 관광을 기획하고 여행자와 지역을 연결하는 여행 플래너 '카름마스터'를 모집하여,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해설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 주도형 로컬리티 관광 서비스 개발에 주력함.</li> <li>· 현지인처럼 여행하기를 선호하는 최신 트렌드에 발맞추어 관광통역안내사 등 전문 인력을 우대 선발하고, 농촌 관광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지역 주민의 관광 산업 참여 기회 확대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함.</li> </ul>
	<b>기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디지털 농정 구현을 위한 전수조사 데이터 구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최초로 도내 5만 5,000여 농업경영체와 172개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실경작 중심의 '농업·농촌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필지 단위의 정밀한 작물 재배 정보와 농업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확보함.</li> <li>· 위성영상 기반의 '팜맵'을 활용하여 정확한 경작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농가별 맞춤형 지원과 품목별 수급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학적 지표에 기반한 제주형 미래 농업의 디지털 전환 기틀을 마련함.</li> </ul> </li> <li>- <b>제주형 스마트공장 보급 가속화 및 환경 개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내 제조 현장의 공정 혁신을 위해 기업당 지원금을 최대 3,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자부담 비율을 25%로 완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2026 제주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함.</li> <li>· 신규 구축은 물론 기존 구축 기업의 고도화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 온라인 사업 관리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여 지역 기업들이 비용 부담 없이 AI 전환(AI) 등 디지털 혁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함.</li> </ul> </li> <li>- <b>크루즈 관광 인프라 및 주차 혼잡 해소 정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귀포 강정크루즈터미널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 총사업비 286억 원을 투입, 주차 용량을 현행 대비 3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친수공원과 광장을 포함한 2만 6,510㎡ 규모의 지원 시설 조성 사업에 본격 착수함.</li> <li>· 대형 크루즈선 입항 시 반복되던 버스 대기 혼선과 주변 교통 정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여 항만 운영 효율을 높이고, 이용객의 이동 편의와 주민 소통 공간을 동시에 확보하여 크루즈 관광 경쟁력을 강화함.</li> </ul> </li> </ul>
	<b>성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유망 스타트업 및 로컬 관광 기업 집중 육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주·항공, 해양, 친환경 등 제주 전략 산업 분야의 초기 스타트업에 시드머니를 투자하고 TIPS 프로그램 연계 및 재무 컨설팅을 제공하여 유망 기업의 안정적인 시장 안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함.</li> <li>·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 로컬 기업 30개사에 사업화 자금 1,500만 원과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상품을 스타 상품으로 발굴하여 온·오프라인 유통 판로를 통합 지원하는 패키지 사업을 시행함.</li> </ul> </li> <li>- <b>고용 지표의 양적 성장과 질적 개선 과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월 제주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만 7,000명 증가하고 고용률 71.7%를 기록하며 4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성하는 등 고령층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양적 고용 지표는 뚜렷한 회복 흐름을 나타냄.</li> <li>· 다만 고용 증가분이 임시직과 건설업 등에 편중되어 상용 근로자는 오히려 정체가되거나 감소하는 등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는 한계가 드러나,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와 고용 구조의 불균형 해소가 지속적인 과제로 남음.</li> </ul> </li> </ul>

경제·관광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특화 브랜드 '제주도니'의 명품화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양돈농협의 브랜드 '제주도니'가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바탕으로 6년 연속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며 청정 제주 돼지고기의 브랜드 가치와 품질을 인정받음.</li> <li>· 품질, 마케팅, 서비스 등 다각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여 소비자 신뢰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품질 고도화와 브랜드 파워를 통해 지역 축산 농가의 소득 증대와 제주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li> </ul> </li> </ul>
-------	----	--

○ 지역·사회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항공(결항), 꽃자왈, 쓰레기, 편이, 서명숙 등으로 나타남



[그림 3] 지역·사회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지역·사회	항공 (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풍 및 급변풍에 따른 항공편 무더기 결항 사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전역에 발효된 강풍 및 호우 특보와 더불어 제주공항 내 급변풍 경보가 겹치면서 지난 9일 하루 동안 예정된 항공편 중 246편이 무더기로 결항되어 제주를 오가는 하늘길 운항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함.</li> <li>· 기상 악화로 인해 김포, 김해, 청주 등 주요 노선이 마비되며 관광객과 수학여행단 등 3,000명 이상의 이용객 발이 묶였고, 결항 소식에 공항으로 몰려든 인파로 인해 대합실 내에서 극심한 혼잡과 불편이 지속됨.</li> </ul> </li> </ul>
-------	------------	---

	<p><b>항공 (결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류객 지원을 위한 제주공항 ‘주의’ 단계 발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출발 항공편 기준 결항편 승객이 3,000명을 넘어서자 한국항공공사 제주 공항은 체류객 지원을 위한 ‘주의’ 단계를 즉시 발효하고 비상대책반을 가동하여 이용객 안내 및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에 돌입함.</li> <li>· 박천수 도지사 권한대행이 직접 공항 현장을 방문하여 항공기 운항 현황과 체류객 안전 대책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인근 도로 통제 상황 전파 및 낙하물 피해 방지 등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을 지시함.</li> </ul> </li> <li>- 항공기 운항 정상화 및 임시 증편을 통한 수송 작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상 상황이 호전된 10일부터 국내선과 국제선 임시편 총 39편을 긴급 투입하여 약 8만 9,000명의 승객을 순차적으로 수송하기 시작했으며, 결항으로 인해 밀려있던 체류객들을 도외로 이송하기 위한 정상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됨.</li> <li>· 대규모 결항에 따른 잔여 좌석 부족과 봄철 여행객 집중 시기가 맞물려 좌석난 해소에는 며칠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항 측은 이용객들에게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하고 대체 교통수단을 고려할 것을 지속적으로 안내함.</li> </ul> </li> </ul>
<p><b>지역·사회</b></p>	<p><b>꽃자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장굴 인근 꽃자왈의 대규모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지구인 만장굴 인근 꽃자왈 일대에 130여 곳의 쓰레기 무단투기 현상이 확인되었으나, 행정당국의 미흡한 조치로 인해 소파와 타이어 등 폐기물이 6개월 이상 장기간 방치되며 제주의 생태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됨.</li> <li>· 환경단체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와 정확한 좌표 전달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뒤늦은 현장 확인과 관리 부실로 인해 기존 폐기물 위로 새로운 쓰레기가 쌓이는 등 상습 투기 지역으로 변질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단속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li> </ul> </li> <li>- 꽃자왈 요가·명상 및 사운드워킹 등 힐링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꽃자왈공유화재단은 교래자연휴양림에서 5월 중 오감을 깨우는 ‘꽃자왈 힐링 리트릿’을 운영하여 참가자들이 꽃자왈의 맑은 공기와 숲의 소리에 집중하며 지친 일상의 마음을 회복하고 제주 자연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마련함.</li> <li>· 해설사와 함께 탐방로를 걸으며 숲의 소리를 채집하는 사운드워킹과 요가 프로그램을 통해 꽃자왈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회복과 위로의 공간임을 알리고, 공유화 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며 자연 유산 보전의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함.</li> </ul> </li> <li>- 꽃자왈 생태계 보전 및 연구를 위한 민관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생태원과 꽃자왈공유화재단은 성산 수산 꽃자왈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꽃자왈 생태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하고, 생태계 표준관측망을 기반으로 주민들이 직접 보전 및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과학 방식의 관리 체계를 구축함.</li> <li>· 주민 중심의 현장 보전 활동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꽃자왈 관리 모델을 수립함으로써 지역 사회가 주도하는 청정 자연 보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됨.</li> </ul> </li> </ul>
	<p><b>쓰레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라산국립공원 내 고질적인 쓰레기 투기 문제 심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5년간 한라산에서 수거된 쓰레기가 183톤에 달하는 가운데, 특히 탐방로 주변과 백록담 정상부, 고지대 화장실 등에 탐방객들이 버린 페트병과 비닐 등 각종 오물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여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이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음.</li> </ul> </li> </ul>

지역·사회	쓰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달 ‘대청결의 날’을 통해 대대적인 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일부 탐방객의 몰상식한 투기 행위로 인해 자연환경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연간 30톤 이상의 쓰레기가 지속적으로 수거되는 등 관리 인력과 행정력 소모가 막대한 상황임.</li> <li>- ‘자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 범도민 인식 개선 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세계유산본부는 라면 국물로 인한 오염을 줄이는 캠페인과 함께 성숙한 시민의식 실천을 독려하고 있으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정화 활동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모든 탐방객이 쓰레기를 직접 가져가는 문화 정착을 위한 강력한 홍보를 병행함.</li> <li>· 국립공원 내 쓰레기 투기 및 취사, 음주 등 금지 행위 적발 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하며, 청정 제주 환경 보존을 위해 탐방객 개개인이 환경 지킴이로서의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다양한 교육을 전개함.</li> </ul> </li> <li>- 곳자왈 무단투기 사각지대 관리 부실 및 수거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CTV 설치가 어려운 외곽 지역 곳자왈이 상습적인 대형 폐기물 무단투기 장소로 이용됨에 따라, 행정당국은 환경단체가 제보한 누락 지점을 포함해 이달 안으로 잔여 폐기물을 모두 수거하고 주기적인 순찰 강화와 감시 체계 보완을 약속함.</li> <li>· 지리를 잘 아는 인근 주민이나 차량을 이용한 투기 행위가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신고 포상 제도를 활성화하고,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불법 투기로 인한 지하수 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주력함.</li> </ul> </li> </ul>
	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동 약자의 접근성 향상 및 생활 편의 증진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특별자치도는 소규모 민간 건축물에 경사로 설치 비용의 70%를 지원하여 장애인과 노인 등 이동 약자의 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고, 제주시가 도입한 ‘장애인 병원 동행 서비스’를 통해 병원 방문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하는 등 체감형 복지 편의를 대폭 강화함.</li> <li>·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민관 합동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전통시장이나 경로당 등 생활 밀접 시설에 대해 도민들이 직접 점검을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지역 사회 전반의 안전성과 생활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함.</li> </ul> </li> <li>- 공직자 부패 비리 및 특정 업체에 대한 불법 편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급공사 업체 대표로부터 독과점 계약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8,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제주도 공무원이 구속되는 등 공정 기회를 훼손하고 도민 삶에 피해를 주는 지역 밀착형 토착 비리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특별 단속과 엄정한 사법 처리가 진행됨.</li> <li>· 경찰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당 계약과 권한 남용 등 4대 토착 비리를 집중 수사하여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적인 편의 제공 행위를 근절하고, 부패 범죄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공직 사회의 청렴도와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총력을 기울임.</li> </ul> </li> </ul>

지역·사회	서명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올레의 어머니’ 서명숙 이사장 별세 및 추모 물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민국에 걷기 열풍을 일으키며 여행의 패러다임을 바꾼 고(故) 서명숙 제주 올레 이사장이 지난 4월 7일 향년 68세로 별세하였으며, 수많은 올레꾼과 동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귀포시 서북공원에서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영결식이 엄숙하게 거행됨.</li> <li>· 고인은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정치부 여기자 1세대로 활약하다 고향 제주에 사람이 대접받으며 걷는 길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제주올레를 완성하였으며, 고인의 유해는 평소 아끼던 올레길 인근 한라산 국립공원 경계의 사찰 남국선원 납골당에 안치되어 영면에 들어감.</li> </ul> </li> <li>- 언론인으로서의 치열한 삶과 제주올레 개척의 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시사저널&gt; 편집장과 &lt;오마이뉴스&gt; 편집국장을 역임하며 치열한 언론인의 삶을 살았던 고인은 번아웃 이후 떠난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에서의 영감을 바탕으로 2007년 성산읍 시흥리에서 시작되는 올레 1코스를 개척하며 제주 전역에 27개 코스의 도보 여행길을 조성함.</li> <li>· “걸은 만큼 제주가 보인다”는 신념 아래 차를 타고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아닌, 느리게 음미하며 제주의 속살을 발견하는 도보 여행의 가치를 전파하였으며, 고인의 헌신적인 노력은 제주올레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글로벌 도보 여행의 상징으로 자리 잡는 토대가 됨.</li> </ul> </li> <li>- ‘놀멍, 쉬멍, 걸으멍’ 철학이 남긴 지속 가능한 관광의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 중심의 한국 관광 문화를 사유와 성찰의 생태 여행으로 완전히 변화시켰으며, 고인이 제시한 ‘놀멍, 쉬멍, 걸으멍’의 철학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를 여는 핵심적인 가치로 인정받아 2009년 관광진흥 유공 대통령 표창 등 수많은 상을 수여받는 공로를 인정받음.</li> <li>· 고인의 정신은 일본, 몽골, 영국 등 해외로 뻗어나가는 ‘자매의 길’을 통해 세계적인 걷기 문화로 확산되었으며, 이름마저 빼앗긴 채 살아온 이들의 아픔을 다룬 영화 제작 지원 등 제주 4.3의 비극을 치유하고 존엄을 회복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져 제주 사회에 깊은 울림을 남김.</li> </ul> </li> </ul>
-------	-----	---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